



“잘리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인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두발자유화를 원한다

청소년들이 두발자유화를 외치고 있다.

2000년 청소년들은 두발자유화를 요구해 '규제완화'라는 성과를 따냈다. 그러나 시계는 다시 거꾸로 돌아 가고 있다.

'규제완화'는 커녕 학생부 교사가 가위와 바리깡을 들고 다니며 학생들의 머리에 고속도도를 내고 폭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학생부 교사의 ‘손가락’이 기준이 되어 뺏머리가 잡히면 그대로 ‘썩둑’이다. 삭발도 안된다. ‘반항’의 표시로 받아들여 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도소도 이것보다는 낫겠다”고 말한다.

이뿐 아니다. 두발은 귀밑 4cm, 일 자머리, 층내기 금지, 신발은 흑백운동화, 흰 양말, 심지어 속옷색깔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온갖 규제로 학생들의 인권과 개성은 묵살되고 있다.

내신등급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지난 9일 청소년 대표들과 면담을 가진 교육부 김진표 장관은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지도를 지양토록 권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모든 종교교에 “현재의 두발 관련 규정에 대해 학생들이 개정안을 만들게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해 두발규제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지난 2000년 두발규제에 대한 항의가 쇄도하자 교육부가 내놓은 양보안과 똑같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침은 분노한 학생들을 수습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에 의견권도 없이 참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 고작이다. 설사 합의안이 만들어져도 학교가 안 지키면 그만이다. 실제로 많은 학교는 학생들과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동장에서 생각만 해도 굴욕적인 집단적인 두발단속을 계속해 왔다.

교육부의 소위 ‘두발 자율’은 양보 안이기는 하나, 학생들의 두발은 어쩔든 규제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규제당하는 것 자체에 분노한다.

교육부가 내거는 규제 이유는 학력 신장이다. 학생들을 시험기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를 최대한 억제하고 다양성을 말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력신장을 운운하며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바람에 두발자유화 규정을 가졌던 학교마저 다시 두발 단속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라.

학생들에게 내신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이 교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



학생들의 목소리

“제가 제 몸에서 나는 머리털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 환경이 마음에 들까요? 머리를 강제로 깎게 만드는 학교에 대해 중요심만 들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학교의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민약에 두발자유를 한다고 해도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사립학교의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이사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아무리 날뛰어 보아도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확률은 0.000000000001%조차도 안 됩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단체 시위라도 할라치면 학생부에서 바로 나와서 이어지는 동동이 세례와 징계 등...”

“맹군은 '조선시대 때 다들 머리가 길었다'며 '그 사람

들이 공부 못했나? 세종대왕은 한글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맹군의 이야기는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맹군은 '학교에 5cm, 10cm으로 기르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옳지 못하다며 '강짜한테 뽕뽕길 때 일주일에 얼마만큼 뺏어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두발규제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희 학교가 제발 두발자유되게 도와 주세요! 저희 학교 8시10분까지 등교예다가 두발검사, 뺏지검사, 복장검사, 소지품 검사, 정발 짜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긴 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 수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무지개 빛” 개성은 “탈선”으로 둔갑하고 학생들은 입시를 위한 기계 인형이 되기를

강요당한다. 학생들은 통제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개성과 자유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들이다. 두발 규제와 같은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억압적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청소년들의 첫 도심집회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주 토요일, 1천여 명의 촛불 집회는 입시제도에 항의한 청소년들의 첫 도심집회였다.

한국사회에 모든 여론은 이 집회에 학생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교육당국은 이 집회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막아 달라는 공

문을 보내고, 인근 초등학교에 상환실까지 설치했다. 집회장에는 장학관, 장학사, 각 학교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 교사들을 배치했다.

학교 내에서는 집회 참가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는 교내 방송이 연일 계속됐다. 광화문 근처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직접 일부 학생들의 참가를 막기도 했다.

게다가 집회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자그마치 6천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그럼에도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것이다. 역 안까지 배치된 경찰 때문에 차마 밖으로 못 나온채 광화문 역 안과 교보문고에서 서성이던 학생들도 많았다.

입시정책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첫 도심 집회는 뜨거운 환호와 속 시원한 발언으로 매우 활기찼다. 참가 학생들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편, 5월 7일 집회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어른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른 길”(동아일보)이라며 ‘학생들이 뭘 알아’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당국은 ‘배후’에 ‘불순 세력’이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촛불 시위의 진정한 배후는 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당국이다.

학생들은 아직 독립적 판단을 할 줄 모를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학생들은 3·1운동부터 4·19혁명, 5·18광주항쟁 등 제국주의와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입시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는 당사자들이 교육 정책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올해 초, 프랑스 고등학생들 10만명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고등학교간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항의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은 교육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프랑스 전역의 대도시에서 거대한 시위를 벌였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교육개혁안’ 입법을 포기해야만 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전 세계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

어떤 내신등급제도, 본고사 부활도

입시지옥을 낳을 뿐

입시제도에 반대해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초유의 사건이 터지자, 교육부는 학생들을 달래느라 분주한 기색이 역력하다.

교육부와 여당의 불안무마용 학생달래기 방안이 이어졌다. 한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내신등급제가 적용되는 12권의 시험을 6번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미봉책일 뿐이다. 중간·기말고사의 난이도를 낮추면 뭐하겠는가. 시험이 쉬워진다고 해도 내신등급제 하에서 1~2점을 놓고 사활을 건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되레 각종 수행평가가 변별력 강화의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며칠 간격을 두고 여러 개의 수행평가를 치르느라 학생들은 더한 입시경쟁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내신등급제가 적용되는 시험 횟수를 줄인다고 해도 3년 내내 고3처럼 사는 것에는 변함이 없

다. 학생들의 분노는 내신등급제 모양새를 조금 손질한다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합당한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신등급제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공교육을 사교육화하는 방안일 뿐이라는 점이다. “내신대비 학원은 새벽까지 불이 환하다.” 수능 대비 사교육이 내신 사교육으로 바뀐 뿐이다.

본고사 부활—또 다른 지옥

한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내신등급제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위하는 척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제스처는 완전한 위선이다. 이들은 또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 본고사 부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3불 정책’(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을 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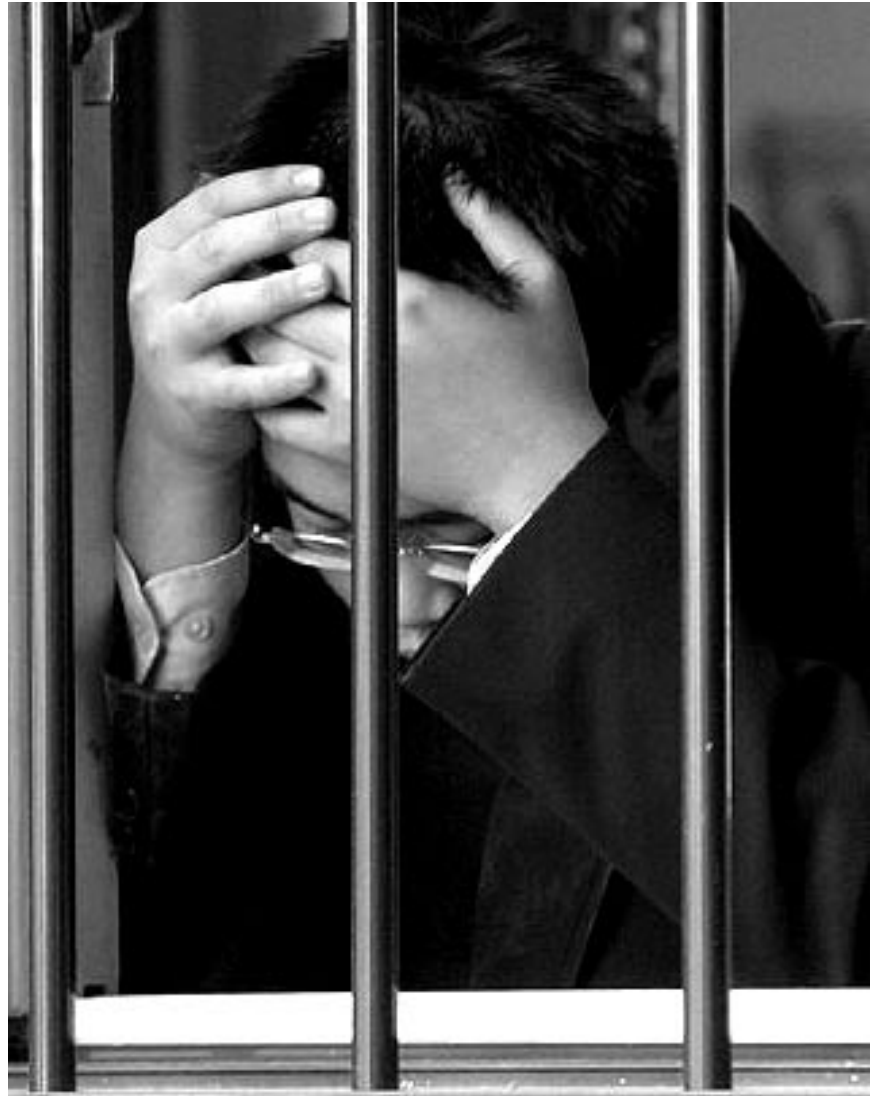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하자며 본색을 드러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교육부의 3불 정책 가운데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재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학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도 사실상 본고사와 다름 없는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적극 주장한다.

그러나 내신등급제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본고사 부활에도 반대했다.

한국의 학생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른바 SKY 대학에 가는 것만이 성공으로 여기도록 하는 대학서열화 때문이다. 본고사 부활은 이 대학서열화를 더 강화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내신등급제와 본고사는 모두 대안이 아니다. 입시경쟁 하에서는 어떤 제도도 청소년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 뿐이다. 대학 서열을 폐지하고 수능을 기초적인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한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저는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신등급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 친구들과 무한 경쟁하도록 시키는 나쁜 정책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전교조가 요구했던 학교 정상화에도 역행하는 정책이지요.

최근 내신등급제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 부담은 말도 못하게 커지고 있다는 걸 저는 교육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본고사 부활도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준비, 수능 준비, 본고사 준비는 전부 대입을 위한 수단들입니다.

학벌 사회, 대학서열체제 하에서는 내신 이든, 수능이든, 본고사든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회에 참가한 아름다운 학생들처럼 자유와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아름다운 학생들을 위해 대학별 서열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 내신 강화든 수능 강화든 본고사 부활이든 모두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있는 행동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성동구의 한 과학교사 김성보)

학생들의 목소리

“친구, 추억, 제일 좋고 아름다운 시절, 이게 다 무엇입니까? 등급 앞에서 다 무너진 것들요.”

“저희는 판타지 소설에서 보는 만능의 천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판타지 소설의 먼치킨 주인공도 아니고, 친구들의 죽음에 계속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강심장에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인간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마세요. 서로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나 그 뒤통에 칼을 숨긴, 진실되지 않은 친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정? 친구? 잊은 지 오래입니다. 서로를 죽여야 하는 내신등급제로 인해서 생긴 이 잔혹한 현실, 교육부 당신들이 원하던 결과입니까?”

“우리는 실험용 흰 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고기냐? 상품이나? 성적 하나로 사람 등급을 정해 버리는 게 좋은 제도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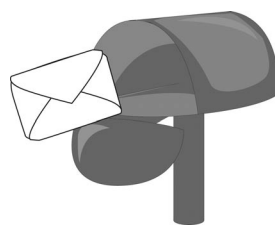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애들. 처음엔 왜 그러냐 했는데, 시험보고 나서 공감했습니다. 애들 모두 우울증 환자 같습니다. 진짜 살맛 나지 않는다고 평평 읊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학교에 가서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급식으로 해결하고 별을 보며 돌아오는 아이들은 닭장에 갇힌 닭과 같이 사육되는 꼴입니다.”

“논술은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창의적 인간은 커녕 배불리 먹는 법을 위해 영무새처럼 외운 철학을 열거하는 논술 고액 과외를 부추기는 원흉이며, 출발부터 불리한 경쟁에 주눅들게 하는 비참한 시험!”

“자신의 주장을 바르게 내세워야 정당한 민주사회가 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인권과 권리를 추구하려들자 무력으로 막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는 학생들의 여론 민심은 헤아리지 아니하는 거죠. 학생들의 행동을 탄압만 하려는 행태가 과연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정부의 모습인가요?”



한 어머니의 편지

[이 글은 교육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한 학부모의 편지입니다]

아들이 미안하구나. 네가 특목고 가고 싶어할 때 엄마는 글맥학원도 페르마 학원도 보내줄 수 없었지.

아들이 미안하구나. 엄마는 너에게 교환학생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에서 살다운 아이들을 이길 수 없음을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아들이 미안하구나. 명문대 갈려면 엄마의 정보력이 40%, 아빠의 경제력이 60% 작용하는데 우린 경제력도 정보력도 부족하구나.

아들이 미안하구나. 엄마 아빠는 네 학교 수업료, 보충수업료, 야간자율 학습비 그리고 참고서비 대는 것도 빠듯하구

나. 그래도 조이고 조여서 동네 20만 원짜리 학원 하나 보내주고 뿌듯했는데, 논술 학원비는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구나.

아들이 미안하구나. 대학에서 논술을 강화하겠다고. 논술 학원은 서울대반·연대반·고대반·이대반 서강대반,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그룹과외를 시킨단다. 그 가격이 수백만 원대이지. 엄마 아빠가 그거 시켜줄 능력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지? 음 책 열심히 읽겠다구? 글썄? 수능에 내신에 그거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언제 그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엄마 아빠 기대도 안 한단다. 논술이 어디 언어영역 뿐이라 더냐? 수리논술, 영어논술, 언어논술. 내가 논술 문제들 보니까 대학 나와 나이 사십먹은 나도 도대체 그 문제의 뜻조차

도 이해가 안 되더구나. 너 어깨의 짐이 무거워나는 도저히 눈을 뜨고 널 볼 수가 없단다.

오늘 동네 아줌마랑 전화통화했다. 그냥 명문대 포기하자. 어디 명문대 나와야지만 꼭 잘 된다는 법 있다더냐. 그렇게 자조섞인 말들을 주고 받으며 정말 씁쓸했다.

아들이 미안하구나. 오늘날 스키아에 대한 꿈을 불태우면서 학교에서 눈을 빛내고 있겠지? 졸리면 허벅지 꼬집으며, 손등을 물어 뜯으며...

어젠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지. 학교에선 야간자율학습 안 빼주어서 병원에서 주시맞고 학교로 다시 향했지. 약 먹고 너무 졸려 졸다가 선생님께 야단맞고 조는 네가 안쓰러워 깨워주면 친구까지 같이 야단맞았다며?

아들이 미안하구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서...